

댓글 이어쓰기가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공주은**

〈차 례〉

1. 들어가며
2. 온라인 기반 글쓰기 수업에서 수업 참여도의 중요성과
‘댓글 이어쓰기’의 특징
3. ‘댓글 이어쓰기’ 활동 분석 결과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환경을 기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지점에서, 대학 교양국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댓글 이어쓰기를 제안한다. ‘강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9086)

** 영남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성과관리센터 연구원

실의 부재'로 야기된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 저하 문제를 LMS에서 실현 가능한 상호소통적 환경과 글쓰기 부담이 적은 댓글 이어쓰기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댓글 이어쓰기 활동을 시행한 학기들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유효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이어쓰기를 LMS에서 도출 가능한 여섯 가지 종속 변수들과 연계해 살폈을 때, 과제 참여도>성적>LMS 관심도>출석률>과제 제출률>LMS 누적 접속 횟수 순으로 상관관계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뚜렷한 양적 상관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이어쓰기는 다변화된 대학 글쓰기 수업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견인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댓글 이어쓰기, 비대면 수업, 온라인 글쓰기, 수업 참여도, 글쓰기 교육

1. 들어가며

지난 3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심각화 및 장기화로 인해 국내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이 지속되었다. 대학 역시 이러한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개강이 연기됐을 뿐 아니라, 수업의 형태 또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강의실 기반의 대면 수업이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이상 일회적인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비상사태가 더이상 비상(非常)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혹은 도래할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는 수업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재, 대학에서는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대두되었다. 학생들의 출석, 과제, 성적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뿐 아니라 줌(Zoom), 스카이프(skype), 구글 미트(Google Meet) 등을 활용한 화상 강의 역시 새로운 수업 형태로 활용되었으며, 엔데믹이 선언된 현재에도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수업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학 자체에서 혹은 교수자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수업은 유지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있었다. 단적으로 말해 이러한 혼란 중 대부분은 ‘강의실의 부재’에서 파생된 것이다. 대면 수업에서 강의실이라는 공간은 수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공동의 무리로 인식하게끔 한다. 대학 강의실은 일종의 ‘서비스 스케이프(Servicescape)’라 할 수 있다. 강의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자와 이를 소비하는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실재 공간으로, 물리적 환경의 요소가 수업 집중도 향상과 학생 만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¹⁾에서 여전히 유효한 공간이다. 대면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라면 이때 형성되는 무의식적·암묵적인 공동체적 분위기가 학습 환경에 작용하는 힘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수업을 이루고 있던 물리적 공간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²⁾ 대다수 대학들 그리고 교양국

1) 진혜경, 김대철, 「대학교육서비스에서 강의실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만족과 수업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7, 357~361쪽.

2)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네르바 대학(Minerva University)과

어 수업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융복합적 창의력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기존 대학 글쓰기 교육의 고루한 개념에서 탈피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³⁾ ‘수업 현장’, ‘지면’, ‘쓰기’와 같은 개념을 둘러싸고 있던 고정된 틀을 깨고 글쓰기 수업의 내용과 형식을 다면화하며 그 범주 또한 확장해야 한다. 매 순간 변화하는 새로운 글쓰기 수업 현장을 인지하고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다변화된 수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습자들을 수업에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다. 사회적 실재감 부족, 학습 부담, 교수자와의 제한적인 상호작용이 온라인 학습자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요인⁴⁾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심어 주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글쓰기(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렇듯 닥쳐온 새로운 수업 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덧글 이어쓰기’를 제안한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교육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오는 2023년 9월에 문을 여는 태재대학교는 전체 수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캠퍼스라는 실제 공간을 대학의 교육적 환경으로 인지하고 수업을 진행했던 기존 인식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강의실의 부재’는 간단히는 코로나-19로 야기된 현상이었으나, 두 대학의 사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대학의 수업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도래할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3) 공주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서사 정립의 중요성과 쓰기 개념 재고의 필요성-자기 소개 영상 제작 수업 실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314쪽.
- 4) 이은준, 「온라인 학습자들의 불안과 장애요인 인식 유형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 『인간이해』 제34권 제2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3, 70쪽.

2. 온라인 기반 글쓰기 수업에서 수업 참여도의 중요성과 ‘땀글 이어쓰기’의 특징

1) 온라인 기반 글쓰기 수업에서 수업 참여도의 중요성

대면 수업에서는 물리적 공간(강의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수업 환경을 간단히 조성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비대면 수업은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을 상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기존의 학습 분위기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업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때, 강의실이 부재하는 비상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 학습 동기 등을 유지하는 일 역시 용이하지 않으리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매 학기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고질적인 문제들⁵⁾은 강의실의 부재라는 문제적 상황과 결부돼 이전보다 더 크게 부각된다.

특히 2020학년도 신입생을 위시해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에 입 학한 학생들이 겪은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경험 박탈, 외출 자제, 비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인한 무기력함, 교수자-학생, 선배-후배 간 관계 단절로 인한 인간관계의 제약, 대학

5) 교양국어 수업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발견되는 학생들의 고민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고민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 참여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특히 글을 이어나간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이공계열, 예체능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부각된다.

-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다.
- 나는 글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 쓸 내용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 탁월한 주제를 떠올려야 멋진 글이 탄생할 것이다.
- 어차피 원래 글을 잘 쓰던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생활 정보 습득의 어려움, 우울감, 불안감, 자존감 저하 등을 가져왔다.⁶⁾ 한 연구 결과, 온라인 기반 수업을 경험하면서 학습자가 가장 어렵게 느낀 부분은 ‘소통’ 문제로 나타났다.⁷⁾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서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습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고립감, 즉 소외를 경험한다.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소외현상은 학습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약화시켜 마침내는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⁸⁾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강의실을 기반으로 한 대면 수업이 형성하던 수업 분위기를 더는 당연한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지금, 학생들에게 대학 수업, 더욱이 진입 장벽이 높은 글쓰기(수업)는 더욱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심각화되던 때 필자가 글쓰기 수업에서 제시한 ‘댓글 이어쓰기’ 활동은 생소한 수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도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활동은 댓글 특유의 가벼움과 자유로움, 이어쓰기의 네트워크적 성격을 기반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소속감을 맛보게 하면서, 동시에 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댓글 이어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에 유효한 효과를 끼치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교육 현장에서 수업 참여도가 왜 이토록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수업 참여도는 학습자가 수업 관련 활동에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자발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정의⁹⁾된다.

6) 최현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5집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277~284쪽.

7) 손유경, 「언택트(Untact)시대의 소통방안에 대한 소고-대학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5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1, 52~55쪽.

8) 전주성, 최은혜, 「두려움과 좌절을 넘어서: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정서적 경험 이해하기」, 『평생교육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0, 106쪽.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행 요건이며,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의미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결국 질적으로 우수하고 효과적인 수업은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심이 될 때 가능하다.¹⁰⁾

또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이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많아질수록 학생들은 암기나 이해보다는 분석, 적용, 종합하는 수준의 사고를 하게 되었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수업은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높이고,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켰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 인성에 대한 함양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미래 사회의 핵심역량으로, 대학 교육이 함양해야 하는 주요한 능력이다.¹¹⁾ 이러한 이유에서 수업 참여도를 유지·견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일련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수업 참여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발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이렇듯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수업 참여도를 견인하는 일이 새로운 수업 환경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간단히 ‘강의실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이로 인해 야기된 소통의 부재, 소외 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수업 참여는 수업과 관련된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도 해당 교실에서의 축적된 상호작용

9) 차민정 외, 「학습자의 수업 참여 측정도구 개발」, 『교육방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0, 199쪽.

10) 정은이, 「대학생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육방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2, 356쪽에서 재인용.

11) 김민성,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학수업의 운영방식과 참여구조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심리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15, 136쪽에서 재인용.

의 영향을 받는다¹²⁾는 점에서 강의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결국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다시금 견인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간의 거리(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수업 주체-수업 내용 간 거리 등)를 좁혀 이들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댓글 이어쓰기는 대학 글쓰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 앞에 놓인 두 가지 어려움, 즉 온라인 기반 비대면 수업과 글쓰기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 ‘댓글 이어쓰기’의 특징

댓글 이어쓰기는 ‘댓글’과 ‘이어쓰기’라는 두 가지 쓰기 형태를 결합시킨 것이다. 일반적으로 댓글은 머릿글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독자가 참여하여 머릿글이나 다른 독자의 글에 대해 평한 글들로 구성된다.¹³⁾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이자 이용자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창구이며, 이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양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소이다. 이용자들은 댓글을 활용함으로써 의미 생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게 된다.¹⁴⁾ 이러한 의미에서 댓글 쓰기는, 소급하여 말하면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 행위라 할 수 있다.¹⁵⁾ 댓글은 흔히 원글에 부속돼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

12) 김민성, 앞의 논문, 137쪽.

13) 정일권, 김영석,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06, 304쪽.

14) 조운용, 임영호, 허윤철, 「협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댓글의 속성과 이용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166쪽.

15) 정일권, 김영석, 앞의 논문, 654쪽.

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댓글은 그 자체로 쓰기의 새로운 양태로 이해되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큰 글 쓰기’에 부담을 갖는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때 댓글 쓰기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소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 한편의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이어쓰기와 연계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인지적 역량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어쓰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형식에서는 예술이 민주화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 가능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이어쓰기 역시 이러한 특성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¹⁶⁾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공유하여 글을 쓸 수 있고, 동시에 동료 학습자의 글을 수정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 모두가 실시간 글의 변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어쓰기는 인쇄매체 기반 협력적 글쓰기의 문제점인 결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¹⁷⁾

필자는 댓글 이어쓰기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댓글’(작성란)을 새로운 쓰기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때 ‘댓글 쓰기(달기)’는 댓글을 단순히 게시글에 부착된 것으로 여겼던 기존 인식이나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엄연히 ‘쓰기’의 범주로 인정된다. 댓글을 새로운 글쓰기 양식으로 포섭함으로써 따라올 다양한 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댓글 쓰기의 이점을 이어쓰기에 활용함으로써 비대면 수업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은 물론, 교양국어의 고질적 문제들 역시 해결할 수

16) 김요한, 「‘쓰기’에서 ‘치기’로」, 『독어교육』 제51집, 한국독어독문학회, 2011, 314~315쪽.

17) 이지영, 「학생 필자의 디지털 협력적 글쓰기 참여 양상에 따른 글의 질 차이」, 『작문연구』 제39집, 한국작문학회, 2018, 151쪽.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실시간으로 글을 확인하거나 남길 수 있기에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 게시글(본문)에 비해 길이가 짧아서 글쓰기 부담이 적다.
- 앞과 뒤,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시각적 효과가 강화된다.
- 모바일 기기, PC를 매개로 한 웹에서의 활동에 익숙한 현재 학생들에게 친숙한 형식으로, 글쓰기에 대한 거리를 좁힐 수 있다.
- 접근이 용이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댓글 이어쓰기 활동의 핵심은 ‘부분되기’, ‘가볍게 쓰기’, ‘명석(자리) 치우기’에 있다. 학습자를 하나의 완전한 글을 써내는 인재로 길러내는 것이 대학 교양국어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교수자가 그 뚜렷한 목적성부터 앞세우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한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댓글 이어쓰기를 학기 초반에 학생들에게 제시, 수행케 함으로써 학습자의 소극적 태도로 대표되는 교양국어 수업의 고질적인 문제들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느끼는 글쓰기 부담이나 소외감을 외면한 채 완전한 글을 도출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기존 수업의 한계를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다. 댓글 이어쓰기는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 거리는 물론 학습자와 글쓰기 행위 간 거리를 좁힘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새로운 수업 환경 속에서 필자가 새롭게 제시한 ‘댓글 이어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Y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LMS 환경을 토대로 삼고, 그 속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LMS는 교수자나 학습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조절·구성하고, 나아가 스스로 학습 전반을 계획할 수 있으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능들을 제공하여 학습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떠한 환경에서든 접속이 가능한 열린 플랫폼의 성격을 띤다.¹⁸⁾ LMS의 자율적, 상호소통적, 즉각적 성격이 댓글의 특성과 맞닿음으로써, 학생의 수업 참여도 향상에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3. ‘댓글 이어쓰기’ 활동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0년 2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경북 소재 Y대학 교양 글쓰기 강좌를 수강한 재학생 108명의 LMS 활동 통계이다. 모두 3개 학기 동안 3개 학과 학생들이 해당 과제에 참여했으며, Y대학의 교과과정 지침에 따라 참여 학생 대부분은 1학년으로 구성되었다. 댓글 이어쓰기의 특성상 학생이 따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기에 참여율이 거의 100%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스럽게 글쓰기 부담 완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8) 강인애, 배희은, 진선미, 「스마트 교육을 위한 LMS의 특징: LMS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6, 209~211쪽.

<표 1> 연구 대상자 현황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무응답
20-2	남	17명(48.48%)	26명 (76.47%)	2명 (5.88%)	4명 (11.77%)	1명 (2.94%)	1명 (2.94%)
	여	17명(51.52%)					
	전체	34명(100%)					
21-1	남	13명(32.50%)	34명 (85%)	2명 (5%)	0명 (0%)	2명 (5%)	2명 (5%)
	여	27명(67.50%)					
	전체	40명(100%)					
21-2	남	11명(32.35%)	33명 (97.06%)	0명 (0%)	1명 (2.94%)	0명 (0%)	0명 (0%)
	여	23명(67.54%)					
	전체	34명(100%)					
전체	108명(100%)		93명 (86.11%)	4명 (3.70%)	5명 (4.63%)	3명 (2.78%)	3명 (2.78%)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수업은 학기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0년 2학기의 경우 8주차의 중간시험, 15주차의 기말시험을 포함한 전체 주차가 모두 온라인 비대면 방식(비대면 동영상 녹화 강의)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2021년 1학기 수업은 1주차 1차시부터 4주차 1차시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4주차 2차시부터 15주차의 기말시험까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2학기 수업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중간, 기말시험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전체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변경돼 진행되었다.

A학과와 C학과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 모두 2학기에 수업이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B학과의 경우 중간에 비대면 방식에서 대면 방식으로 전환되긴 했으나, 댓글 이어쓰기 활동은 이미 대면 수업 전환 전인 3주차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활동의 수행 시기나 수행 방법에서 A, C학과의 경우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학기 초(3주차)에 수행한 활동이 수업 참

여도와 관련된 또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B학과와 이를 전후한 A, C학과 간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댓글 이어쓰기 활동이 학습자의 전체 수업 참여도와 또 그에 연속되는 최종 성적에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2) 분석 방법

필자가 학생들과 함께 시도한 댓글 이어쓰기 활동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상정한다. 그렇기에 수업의 전반을 살필 수 있는 플랫폼인 교내 LMS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기본 데이터로 삼았다.

LM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데이터는 교육 데이터 마이닝과 학습분석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LMS에서 축적되는 학습자 온라인 행동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로 인해 LMS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온라인 행동 패턴을 이해하거나 분석을 가능하게 할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을 탐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는 LMS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을 몇 가지 추려볼 수 있었다. 이는 간단히 출석률,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성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과제 참여도는 댓글 이어쓰기 활동을 제외한 여타 과제 참여 횟수를 의미한다. 한편 LMS 관심도는 LMS 내에 축적된 통계 데이터 중 공지글/강의자료/과제 확인 내역, 토론/투표/설문

19) 서진선, 이재경, 「LMS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온라인 학업 성취 예측 모형에 관한 사례 연구」, 『현장수업연구』 제1권 제2호, 순천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0, 125~126쪽.

본 연구의 목적은 필자가 새롭게 제시한 댓글 이어쓰기 활동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이기에, 먼저는 해당 과제의 참여 횟수에 따라 전술한 여섯 가지 종속 변수들의 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를 분석 도구로 삼아 결과를 도출하였다.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를 독립 변수로,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누적 접속 횟수, LMS 관심도, 출석률, 성적을 종속 변수로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댓글 이어쓰기 실제 활동 화면_LMS

[illegible]

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댓글 이어쓰기의 첫 문장은 교수자인 필자가 작성하였다. 1주차 1차시에 진행한 실시간 줌 수업 중 실시한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이어쓰기의 첫 문장을 시작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글쓰기 부담을 낮추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첫 문장을 교수자가 대신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 활동이 온전히 학습자들의 구상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했기에, 특정한 제재나 주제,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성격, 사건의 배경 등은 첫 문장 속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방향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제공된 정보와 정보 간의 공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첫 문장은 활동 개시 2~3일 전에 미리 제시되었다. 교수자가 제시한 문장을 이어 첫 번째로 댓글을 달아야 하는 학생이 작성 내용을 미리 구상하고, 본 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즉 댓글이 이어질수록 뼈대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창작 방향에 따라 이야기의 구성 요소와 주제, 장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²⁰⁾ 이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 역시 다르게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

20) 한편 학생들이 접했던 여러 텍스트나 경험들이 이야기를 구상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추리 소설이나 같은 장르의 드라마를 흔히 접한 학생의 경우 이어쓰기의 내용 역시 동일한 성격으로 구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세 개 학기 동안 세 개 학과에서 구성된 이야기는 모두 다른 장르의 성격을 띠었다. A학과는 판타지, B학과는 미스터리/멜로드라마, C학과는 역사물로 이야기가 구성되었다.

21) 본 연구에서는 ‘댓글 쓰기’라는 글쓰기 형식에 집중해 논의를 이어가지만, 세 학기에 걸쳐 축적된 댓글 이어쓰기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해서도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 교양국어 수업에서 진행되는 ‘쓰기’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3> 댓글 이어쓰기 일정 및 순서 예시

	○월 ○일(월)	○월 ○일(화)	...	○월 ○일(토)	○월 ○일(일)
09:00 ~ 14:00	a b	i j	...	a b a" j	...
14:00 ~ 17:00	c d	k l
휴식 및 내용 구상					
18:00 ~ 21:00	e f	m n
21:00 ~ 24:00	g h	o p

학기 첫 줌 수업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댓글 이어쓰기 순서와 일정을 위 표와 같이 확정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강생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였기에, 댓글 쓰기의 순서는 출석부상의 순서대로(이름순) 정하였다. 한편 특정인의 구상이 전체 분위기를 장악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한 학생당 최대 3회까지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이유로 동일한 학생이 댓글을 연이어 쓰는 것 역시 제한하였다. 자유 순서 때 추가로 글을 작성하고자 하더라도 앞에 적어도 한 사람씩은 두고 다시 써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예: a가 작성자일 때, a-a-b-c:

(×) / a-b-a-c: (○)) 하나의 댓글에 1~3개의 문장까지 이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문장의 길이에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정해진 순서가 모두 돌아간 이후에는 자원자에 한해 자유롭게 뒤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작성 기간은 각 분반별 수강생 수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를 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로 설정하였다.²²⁾ Y대학 교양 글쓰기 수업의 경우 수강생의 수가 적으면 30명, 많으면 50명 정도였기에 자유 쓰기 시간을 2~3일 정도 마련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세 시간당 2명씩, 하루에 최대 8명씩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2학기 A학과 전체 34명을 대상으로 하루 8명씩 글을 쓴다고 할 때, 기본적인 순서는 나홀이 조금 넘으면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사흘 정도를 자유 쓰기 시간으로 추가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글쓰기 순서나 작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기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였다.

댓글 쓰기의 강점은 새로운 댓글이 작성되거나 글이 수정되면 LMS상으로 알림이 와 이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알림 시스템에 기대지 않더라도 반응형 웹을 통해 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 실수로 글쓰기 순서가 조금 밀렸더라도, 교수자나 동료 학생들의 즉각적 피드백으로 인해 글을 어렵지 않게 이어갈 수 있었다.

한편 댓글 이어쓰기의 특성상 작성자는 자신의 순서 직전에 계

22)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제시한 첫 문장에는 등장인물의 특성이나 배경, 사건과 같은 요소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특정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글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작성 기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두었다. 그렇다고 해서 작성 시간을 무기한 늘릴 수는 없었기에, 글의 통일성과 긴밀성을 살리고자 기간을 일주일 전후로 정하게 되었다.

시된 글을 거의 동시적으로 읽고 다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차례의 작성자가 앞의 댓글을 읽고 뒤의 내용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종의 휴식공간이자 완충지대를 중간에 한 시간 정도 마련하였다. 이는 앞의 순서에서 이미 댓글을 작성한 학생이 자신의 글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의미도 있었다.

해당 활동이 진행되던 때는 코로나-19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 반경 안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던 시기로, 이들의 생활 양식상 오전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일 첫 번째 순서에 놓인 학생들의 경우 오전부터 오후 2시경까지 자유롭게 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첫 시간을 제외하고는 두 학생당 세 시간씩 배분하여 한 사람이 1.5시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글을 구상,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실시간 강의 수강이나 아르바이트 등 개인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 다른 순서의 학생과 자유롭게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혹 학생이 자신의 순서를 잊고 글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LMS 알림 기능(쪽지, 문자, 댓글 알림)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기에 작성 순서가 밀리는 일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또 저녁 5시부터 6시 사이에는 한 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뒷 순서의 작성자들이 전술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이야기를 구상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4) 분석 결과

<표 4> 댓글 이어쓰기 3회 참여자 현황(2020-2~2021-2, 27명)

	참여자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회)	과제 참여도 (회)	과제 제출률 (%)	LMS 관심도 (%)	LMS 누적 접속 횟수(회)	출석률 (%)	성적
20-2	㉑1	3	6	100	97.92	219	100	A+(100)
	㉒1	3	7	100	100	368	100	A+(95)
	㉓1	3	4	100	98.61	338	100	B+(85)
	㉔1	3	5	100	100	257	100	A(90)
	㉕1	3	6	100	98.61	266	100	B+(85)
	㉖1	3	5	100	99.31	602	100	B+(85)
	㉗1	3	7	100	95.14	210	100	A(90)
	㉘1	3	6	100	100	299	100	A+(100)
	㉙1	3	6	100	99.59	436	100	A(90)
	㉚1	3	5	100	99.59	258	100	A(90)
	㉛1	3	8	100	100	251	100	A+(95)
21-1	㉑2	3	6	100	100	222	100	A+(95)
	㉒2	3	13	100	100	268	100	A+(100)
	㉓2	3	8	100	100	231	100	A+(100)
	㉔2	3	12	100	94.25	143	100	A+(100)
	㉕2	3	9	100	100	149	100	A+(95)
	㉖2	3	6	100	100	105	100	A(90)
	㉗2	3	7	100	100	212	100	A+(95)
	㉘2	3	11	100	99.21	209	100	A+(100)
21-2	㉑3	3	13	100	100	675	100	A+(100)
	㉒3	3	7	100	96.19	207	89.29	B(82)
	㉓3	3	6	100	94.28	206	100	B+(85)
	㉔3	3	7	100	98.09	233	100	A+(95)
	㉕3	3	8	100	98.09	273	100	A(90)
	㉖3	3	7	100	96.31	272	96.43	B+(88)
	㉗3	3	5	100	99.11	433	100	A(93)
	㉘3	3	5	100	100	377	100	B+(85)

활동 분석 결과, 댓글 이어쓰기 활동에 3회 참여한 학생들은 A학과 전체 34명 중 11명(32.35%), B학과 전체 40명 중 8명(20%), C학과 전체 34명 중 8명(23.53%)으로 집계되었다.

<표 4>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댓글 이어쓰기 3회 참여자의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출석률, 성적 모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개 학기 모두 과제 제출률이 100%에 달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LMS 관심도 역시 평균적으로 98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률 역시 매우 높았는데, 심지어 A, B학과는 3회 참여자의 출석률이 모두 100%에 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성적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 3회 참여자 전체 2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A학점 이상이 20명, B학점 이상이 7명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할 만한 점은 댓글 이어쓰기 3회 참여자들의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출석률, 성적의 여섯 가지 변수 모두 2회 이하 참여자들보다 가시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표 5>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별 종속 변수 현황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	과제 참여도(회)				과제 제출률(%)			
		평균	최고	최저	SD	평균	최고	최저	SD
20-2	3회	5.91	8	4	1.08	100	100	100	0
	2회 ↓	2.52	5	1	1.25	93.48	100	25	16.84
	전체 평균	3.62	8	1	1.99	95.59	100	25	14.18
21-1	3회	9.00	13	6	2.55	100	100	100	0
	2회 ↓	4.38	11	2	2.22	91.41	100	50	14.80
	전체 평균	5.30	13	2	2.94	93.13	100	50	13.68
21-2	3회	7.25	13	5	2.38	100	100	100	0
	2회 ↓	3.27	10	1	2.16	94.23	100	25	17.41
	전체 평균	4.21	13	2	2.78	95.59	100	25	15.42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회)			
	평균	최고	최저	SD	평균	최고	최저	SD
20-2	98.98	100	95.14	1.39	318.55	602	210	110.30
	94.59	100	69.32	6.86	263.48	537	92	109.62
	96.01	100	69.32	6.06	281.29	602	92	112.82
21-1	99.18	100	94.25	1.88	192.38	268	105	50.87
	91.03	100	54.37	8.24	142.19	268	45	57.14
	92.66	100	54.37	8.11	152.23	268	45	59.43
21-2	97.76	100	94.28	1.90	334.50	675	206	149.25
	89.55	100	68.09	8.94	238.65	377	105	69.35
	91.48	100	68.09	8.61	261.21	675	105	102.82

	출석률(%)				성적(점)			
	평균	최고	최저	SD	평균	최고	최저	SD
20-2	100	100	100	0	91	100	85	5.26
	96.43	100	75	6.05	81	95	50	11.62
	97.58	100	75	5.25	84	100	50	11.16
21-1	100	100	100	0	97	100	90	3.48
	92.19	100	50	11.38	83	100	55	11.60
	93.75	100	50	10.65	86	100	55	11.83
21-2	98.22	100	89.29	3.57	90	100	82	5.61
	89.97	100	32.14	13.14	81	100	46	12.39
	91.91	100	32.14	12.14	83	100	46	1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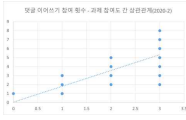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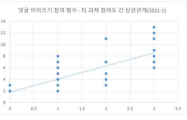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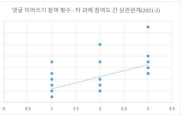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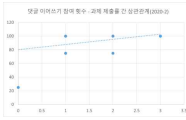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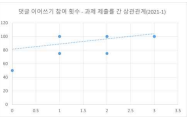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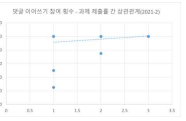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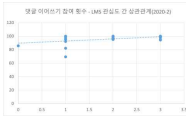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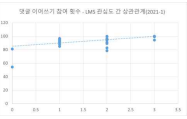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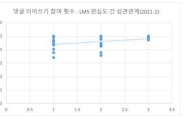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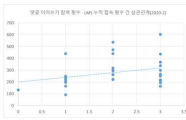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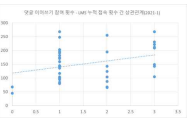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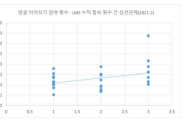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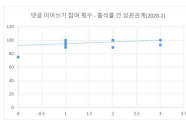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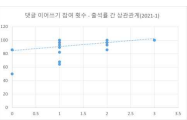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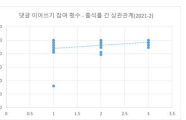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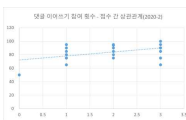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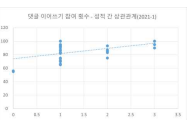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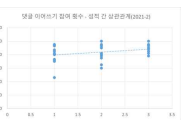
특히 과제 참여도는 3회 참여자의 평균이 2회 이하 참여자의 평균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과제 참여도 요인은 상관분석을 시행했을 때에도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한편 LMS 누적 접속 횟수의 경우 2021년 1학기 B학과의 결과가 눈에 띄는데, 이는 해당 학기의 수업이 학기 초반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었던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면 방식으로 수업이 전환됨으로써 LMS를 통해 전달되었던 정보가 교수자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기에 LMS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도 댓글 이어쓰기 활동의 효과가 확인되기는 하지만,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와 종속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종속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1)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출석률	성적
2020-2	0.788	0.476	0.465	0.315	0.442	0.476
2021-1	0.664	0.402	0.396	0.279	0.475	0.503
2021-2	0.620	0.246	0.408	0.396	0.312	0.305
전체 평균	0.691	0.375	0.423	0.330	0.410	0.428

<표 7>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종속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2)

	2020-2	2021-1	2021-2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출석률			
성적			

분석 결과,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에 따라 종속 변수로 설정한 과제 참여도>성적>LMS 관심도>출석률>과제 제출률>LMS 누적 접속 횟수 순으로 상관관계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1학기의 LMS 누적 접속 횟수(0.279)와 2021년 2학기의 과제 제출률(0.246)을 제외하고는 종속 변수 모두 비교적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를 보였다.

특히 여섯 가지 종속 변수 중 ‘과제 참여도’가 댓글 이어쓰기 활동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특히 2020년 2학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0.788이라는 상관계수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매우 강한 양적 선형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에 진행된 두 차례의 활동 결과 역시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산점도로 변환해 살펴볼 때에도 추세선이 나머지 다섯 가지 종속 변수와 비교했을 때 경도가 확연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댓글 이어쓰기는 학업 성취도의 대표적인 범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적’에도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다. 성적은 과제 참여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는데, 댓글 이어쓰기에 3회 참여한 학생들의 성적이 대체로 매우 높은 결과를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MS 관심도’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이며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형성했다. 2020년 2학기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 이 시기가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장 강했던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온라인 수업이 생소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업 관련 정보를 LMS에 기대 얻어낼 수밖에 없었기에 다른 학기보다 높은 값을 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출석률’ 역시 댓글 이어쓰기 참여 횟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2021년 1학기의 상관계수(0.475)가 가장 높은 이유는 해당 학기의 수업이 4주차 2차시부터 이전과 같은 대면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의 경우 학생들이 훨씬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었기에²³⁾, 출석률에 대한 상관계수가 2021년 1학기에 비해 낮게 도출

23) 일반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의 경우 대략 일주일의 기간 동안, 또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과제 제출률’은 2021년 2학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살핀 여섯 가지 변수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이긴 했으나, ‘LMS 누적 접속 횟수’ 역시 2021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다. 2021년 1학기의 상관계수(0.279)와 실제 평균(152.23회)이 가장 낮은 이유는 앞서 ‘출석률’의 경우가 그러했듯, 해당 학기의 수업이 학기 초 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제, 시험 등의 안내가 실제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입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LMS 활용도가 다른 두 학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댓글 이어쓰기 활동이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 LMS상의 수강생 활동통계로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출석률, 성적의 모두 여섯 가지 요인을 본 연구의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댓글 이어쓰기는 여섯 가지 종속 변수에 크게는 강한 양적 상관성부터 작게는 약한 양적 상관성까지 모두 띠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학습자들의 손에서 탄생한 결과물(한 편의 이야기)은 댓글 이어쓰기 활동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었으며, 필자는 이를 하나의 텍스트로 분석하여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분석 결과를 나누었다. 이때 댓글 이어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를 전후한 여타 과제들에 대해 피드백했을 때보다 해당 수업 내용에 훨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자신들이 구성한 댓글이 하나의 글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 이야기의 성격과 흐름을 단번에 전환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되는 75분 대면 수업에 비해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활용
해 이와 같이 분석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학생들은 댓글 이어쓰기 활동이 이루어진 각 학기의 수업
에서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매 학기 말 시행되는 강의평가 결
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학기 말 시행되는 Y대학의 강의평가는 크게 강의평가 문항(수업
체계, 구성 등) 11개와 학생 문항(학생 자체 평가 문항, 수강 동기
및 참여도) 2개로 구성된다. 이 중 학생 문항의 질문1은 ‘이 과목의
수업 활동(출석, 과제수행, 질의응답, 시험응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
여했다.’로, 해당 문항의 내용은 곧 수강 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그
렇다’를 4점으로, ‘보통이다’를 3점으로, ‘그렇지 않다’를 2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해 평균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살폈을 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업 참여도는 매 학기 각각
4.71점(2020-2, 28명 참여), 4.81점(2021-1, 27명 참여), 4.90점
(2021-2, 30명 참여)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소급해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그들 스스로가
자각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이 연구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기대되었던 교육 환경이
불가능하게 된 지점에서 대학 교양국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댓글 이어쓰기를 제안하였다. 댓글
이어쓰기는 기존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막는 고질적
인 문제로 지목된 다양한 문제들을 ‘부분되기’, ‘가볍게 쓰기’, ‘명석

(자리) 치우기' 등의 특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 이어쓰기 활동을 시행한 세 개 학기, 세 개 학과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해당 활동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데 유효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이어쓰기를 LMS상에서 확인 가능한 수강생 활동통계 데이터 중 과제 참여도, 과제 제출률, LMS 관심도, LMS 누적 접속 횟수, 출석률, 성적과 연계해 살펴볼 때 과제 참여도>성적>LMS 관심도>출석률>과제 제출률>LMS 누적 접속 횟수 순으로 상관관계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양적 상관관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섯 가지 종속 변수들 중에서도 '과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를 산점도로 환산해 표현했을 때 양적 선형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실제 수업 방식이나 수업 조건에 따라 상관관계수 역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 이어쓰기 활동의 시행 목적이 학생들의 글쓰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었기에, 또 특정 학생들에 의해 글이 구성되는 것을 막고 수강생 모두에게 자유롭고도 공평하게 순서가 돌아감으로써 전체 수강생의 참여를 통해 하나의 글이 탄생하는 것을 희망했기에 댓글 이어쓰기의 참여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였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횟수를 3회로 제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상관관계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활동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견인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 개시와 동시에 시작됨으로써 유사한 환경에 처한 다른 수업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범주의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종속 변수를 중심으로 댓글 이어쓰기가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보다 확대하여 댓글 이어쓰기의 결과물을 분석 텍스트로 삼아 댓글 이어쓰기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는 일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이어쓰기로 탄생한 결과물들은 짧은 단편소설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어떠한 정보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문장과 자신들의 배경지식에 의거해 글을 이어나갔는데, 이때 일반적인 글쓰기와는 다른 댓글 이어쓰기 활동만의 특징이 발견된다. 이를 파악함으로써 대학 교양국어 수업에서 진행되는 ‘쓰기’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강인애, 배희은, 진선미, 「스마트 교육을 위한 LMS의 특징: LMS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6, pp. 195-222.
- 공주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기 서사 정립의 중요성과 ‘쓰기’ 개념 재고의 필요성-자기 소개 영상 제작 수업 실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pp. 305-327.
- 김민성,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학수업의 운영방식과 참여구조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심리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교육심리학회, 2015, pp. 135-168.
- 김요한, 「‘쓰기’에서 ‘치기’로」, 『독어교육』 제51호,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11, pp. 309-328.
- 서진선, 이재경, 「LMS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온라인 학업 성취 예측모형에 관한 사례 연구」, 『현장수업연구』 제1권 제2호, 순천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0, pp. 121-154.
- 손유경, 「언택트(Untact)시대의 소통방안에 대한 소고-대학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제50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21, pp. 43-65.
- 이은준, 「온라인 학습자들의 불안과 장애요인 인식 유형에 따른 수업만족도

- 차이], 『인간이해』 제34권 제2호,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3, pp. 61-79.
- 이지영, 「학생 필자의 디지털 협력적 글쓰기 참여 양상에 따른 글의 질 차이」, 『작문연구』 제39집, 한국작문학회, 2018, pp. 147-181.
- 전주성·최은혜, 「두려움과 좌절을 넘어서: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정서적 경험 이해하기」, 『평생교육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2010, pp. 93-116.
- 정은이, 「대학생의 수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교육방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2, pp. 355-378.
- 정일권, 김영석,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론동향 지각과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한국언론학회, 2006, pp. 302-327.
- 조운용, 임영호, 허윤철, 「협오성 댓글의 제3자 효과-댓글의 속성과 이용자의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 pp. 165-195.
- 진혜경·김대철, 「대학교육서비스에서 강의실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만족과 수업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7, pp. 355-377.
- 차민정 외, 「학습자의 수업 참여 측정도구 개발」, 『교육방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교육방법학회, 2010, pp. 195-219.
- 최현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신입생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15집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pp. 273-286.

(투고일: 2023. 5. 15. 심사완료일: 2023. 6. 19 게재확정일: 2023. 6. 23)

공주은
소속: 영남대학교 교육혁신처 교육성과관리센터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전자우편: kamang554@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Comment Relay on Writing Learners' Classroom Participation

Gong, Ju-Eun

This study proposes comment relay as a solution to maintain and enhance the classroom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general Korean language class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expecting a normal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im is to address that the problem of decreased classroom participation caused by the absence of physical classrooms could be resolved through interactive and communicative activities in the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with minimal writing burde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ults from semesters where comment relay activities were conducted confirmed th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f this approach on increasing writing learners' classroom participation. The study examined six dependent variables derived from comment relay in the LMS and observe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the following order: assignment participation, grades, interest in LMS, attendance rate, assignment submission rate, and cumulative LMS logins. Overall, there were clear positive correlations found in all areas. In conclusion, comment relay can be effectively employed to enhance writing learners' classroom participation, even in diverse university writing course environments.

Key words : comment relay, non-face-to-face class, online writing, class participation, writing education